

# 의식 구현의 양식: 현대 영미 단편소설 네 편의 자유간접문체 번역 양상 고찰

정하연(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모더니즘 이후 현대소설이 보인 가장 큰 변화는 플롯 중심의 외적 서사에서 내면 서사로의 이동이며, 이러한 서사학적 특징을 담아내는 기법은 자유간접문체(*free indirect style*)로 대표된다. 19세기 유럽 소설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자유간접문체는 전통 소설에서 사건과 인물에서 멀리 떨어져 서사를 전달하던 3인칭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인물 내면의 깊은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현대 서양소설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 자유간접문체 중심의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자유간접문체의 역사에 비하여 현저히 그 기간이 짧은 현실이다. 나아가 자유간접문체의 특징 및 지표는 언어적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구어적 특성, 시점과 서술의 주관성, 다성성(*polyphony*) 등으로 나타나기에 소설 번역에 있어 단순하게 표현 방식 및 양태 등의 언어별 차이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모호한 사안으로 인지되어 왔다. 동시에 국문번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에 대한 연구 역시 드물게 수행되어, 번역학과 국문학에서 모두 자유간접문체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반면, 21세기 들어 영미권에서는 기존의 화법(discourse) 중심으로 접근되었던 자유간접문체에 대한 이해를 의식의 구현(consciousness presentation) 전 반으로 확장시켜, 화법과 관련된 문장 구조로 구분되는 문장만이 아닌 자유간접사고(free indirect thought)를 포함한 인물 내면을 서술하는 모든 문장을 자유간접문체의 연장선에서 분류하고 있다(Rundquist, 2014 p.160).

본 연구는 자유간접사고를 중심으로 그 개념이 재정립된 자유간접문체의 분류법 및 특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4편의 현대 영미 단편소설의 국문 번역 양상을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접근법을 분석의 틀로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살피고 설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간접문체가 현재 국문에서 영문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자유간접문체 번역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번역의 가능성 그리고 번역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자유간접문체와 의식의 구현

20세기 초 1차 대전 후 유럽의 대격변 속 모더니즘 작가들이 내면 서사 중심의 소설을 시도하며 이와 관련된 서사기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초기 개념은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으로, 문장 표면에 드러나는 직, 간접화법의 지표(따옴표 사용, '—라고 말했다' 등) 없이 다양한 직접화법의 특징들, 즉, 인물 중심 지시어, 표현적 구문, 주관적 어휘, 구어체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인물 내면을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을 일컫는다(정하연, 2015, p. 249).

그러나 자유간접문체는 인물의 말 혹은 내면 발화(inner speech)에 제한된 서사기법이 아니며 인물 내면에서 펼쳐지는 의식 전반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20세기 후반에 들어 단순한 화법의 개념을 넘어 인물의 의식 전반을 구현해내는 서술방식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콘(Cohn, 1978)은 소설 속

인물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기술되는 양식을 심리 서술(psycho-nar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는데, 전통 소설에서는 3인칭 화자가 등장인물 밖에서 심리를 그렸던 반면 자유간접문제에서는 화자와 인물의 경계가 없어진 상태로 구현된다고 구분하여, 전자를 인물-화자 불일치 심리 서술(dissonant psycho-narration)로, 후자를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onsonant psycho-narration)이라고 세분화하였다. 브린튼(Brinton, 1980)은 등장인물의 주관적 관점과 표현방식으로 서사적 세계를 묘사하는 양식을 지각의 재현(represented perception)이라고 규명하였고, 리치와 쇼트(Leech & Short, 1981)는 구어적 표현 구문과 담화 패턴으로 인물의 생각을 담아내는 양식을 자유간접사고(free indirect thought)으로 규명하여 자유간접화법의 개념을 의식 구현의 범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자유간접문체가 등장인물이 갖는 의식의 여러 층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서사기법으로 자리 잡으며, 21세기 들어 파머(Palmer, 2004), 룬드퀴스트(Rundquist, 2014) 등은 자유간접문체를 현대소설의 기법과 문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고, 자유간접문체를 구현하는 양식을 자유간접사고, 지각의 재현 그리고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 등 3개의 하위 범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화법 중심의 이론화 과정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한계로, 자유간접문체가 특정 언어구조의 체계 하에 문법 혹은 문장 구조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매우 다양한 양상과 구현양식을 보인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앞선 연구들이 자유간접문체의 언어학적 측면에 치중해온 반면, 최근의 연구는 자유간접문체의 특징 및 지표를 서사적 맥락 안에서의 의미론적(semantic) 접근에 의해(Rundquist, 2014, p. 160) 정리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개념의 자유간접문체를 토대로 그 하위 범주로서 3가지 의식 구현 양식의 특징 및 지표를 번역 분석에 적용하여 자유간접문체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2.2 자유간접문체의 국문번역

국내의 자유간접문제 번역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김종로(2003),

전성기(2004), 박선희(2011) 등에 의해 프랑스 문학 속의 자유간접문체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며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는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에서 출발하여 자유간접화법 번역시 직접화법 혹은 간접화법으로의 변환 양상 포착하였으며, 특히 박선희(2011)는 자유간접화법을 변형 없이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더라도 맥락상 그 효과가 원문과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대안번역을 통해 보여주었다. 반면, 이들 초기 연구의 명제는 자유간접화법이 문법적으로, 즉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로의 구현 가능한가 아닌가에 머물고 있으며,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과 자유간접문체(*free indirect style*)를 구분되지 않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자유간접문체의 영·한 번역을 다룬 정하연(2015)은 모더니즘 소설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장편 『*To the Lighthouse* (등대로)』의 3종의 번역본에서 관찰된 자유간접문체 번역 양상을 밀도 있게 분석하여, 구어체와 관용구 등의 적극 반응을 통해 자유간접문체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번역에서 확인하였다.

최적(2024)은 중국소설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을 검토하면서 해당 번역문절반 이상이 원문의 자유간접문체 양식을 유지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 화법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번역자가 원문 문체 재현에 있어 구문의 문체적 기능, 즉 자유간접문체로 구현되는 음성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다음성(*polyphony*) 효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후속 연구로 서영환(2018)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연작단편집 『*Dubliners*(더블린 사람들)』의 3종의 번역본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 번역 양상을 검토하였는데 원문의 자유간접화법 및 이를 이루는 지표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그, 그녀, 나 등의 대명사 주어 생략을 통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어체 문장을 구사하지 않고 원문의 주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유간접화법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의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 것은, 불한, 중한, 영한 번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원문의 자유간접문체의 서사적, 문체적 효과에 대한 번역자가 인지여부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언어쌍에서 표현

방식이나 양태의 번역 관련 특정 문제가 발견된 바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자유간접문제 번역에서 특정 언어 사이의 문법적, 표현적 차이가 번역의 장애로 작동하는 것은 아님이 반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연구는 박선희(2018)의 말의 자유간접문제와 생각의 자유간접문제를 나누어 에밀 졸라(Emile Zola)의 소설 『L'Assommoir (목로주집)』의 번역본 비교, 분석으로, 국내 자유간접문제 관련 연구로는 최초로 화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발화되지 않은 “생각”의 재현까지 포함하여 접근하였는데, 자유간접사나 심리서술 등의 이론적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각”의 자유간접문제로 개념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 외 자유간접문제를 화법의 개념에서 나아가 의식의 구현 양식으로 이해하는 최근의 서사학적 이론을 국문 번역에 반영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의식구현 양식의 3가지 하위 범주인 자유간접사, 지각의 재현,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의 구체적인 특징과 지표를 토대로 자유간접문제의 번역을 살피고 기술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3 한국어 구어체와 한국 현대소설의 자유간접문제

앞서 살핀 선행 연구에서 원작 속 자유간접문제의 서사기법적 효과를 인지함과 함께 도착어인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구어체 구사가 자유간접문제의 번역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한국어 글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국문소설의 문장에서 구어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양문규(2013)는 한국 근대소설이 서구소설의 모방을 통하여 형성된 과정을 꼼꼼하게 짚으며, 판소리 문학과 조선 후기 국문소설의 문체로 활발히 사용되었던 한국어 구어체의 전통을 근대문학이 이어가지 않고 서양어와 일본어의 번역체를 합성하여 만든 신식 문언으로 대체했다고 보고 있다(p. 15). 즉, 근대화 과정에서 더 강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의 문화로부터 문어가 중점적으로 번역, 흡수되었기에, 한국 문학의 경우 근대화와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전통문화가 패배한 영향으로 구어체의 전통 역시 문학에서 단절된 것이다. 동시에 해당 연구는 의성어/의태어, 대중의 구어, 속담, 민담 등 여러 구어 전통의 요소들을 사용한 다양한 국문 텍스트 분석을 통

해 구어적 일상어의 문학적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p. 35) 서구문학 속 구어체 기반 자유간접문체의 한국어 번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구어체를 국문 번역에 접목할 수 있는 단서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노대규(1996)는 한국어 구어체의 특성을 1) 다양성 2) 즉각성 3) 친교성 4) 표현성 5) 포함성 6) 구체성 7) 순간성 8) 동태성 9) 모호성 10) 비논리성 11) 비격식성 12) 상황/문맥 의존성으로 정리하며 한국어 입말의 구성요소를 어휘, 문장, 통어론 그리고 음운론의 맥락에서 50여 개의 항목으로 용례와 함께 규명하여 본 연구에서 구어체 번역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한국 현대소설의 자유간접문체를 탐색하고 규명하는 연구는 그동안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는데, 윤영옥(1996)은 박태원의 3인칭 소설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가 주는 내면서사의 효과를 상세히 정리하였고, 김병국(2000)은 판소리 사설에 사용된 자유간접화법을 확인하여 서구 전통의 현대 소설 이전에 이미 문학어의 일부로 자유간접화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최근 연구로 장경실(2023)은 최인훈 소설에서 내면서사의 구축을 위하여 자유간접문체가 중요한 서술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하여 3인칭 대명사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김남희(2019)는 오정희 소설에서 시간과 의식의 흐름을 모호하게 교차하는 서사에 사용된 자유간접문체의 효과를 분석하고 오정희의 실험적 문체가 한국소설 속 내면서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연결된 연구로 이세희 등(2022)은 한국 단편소설의 화법이 영어로 번역된 양상을 오정희 단편의 영역본 분석을 통하여 살피었는데, 이 중 자유간접화법의 경우 번역본에서 직접화법으로 변형된 전략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불한, 중한, 영한 자유간접문체 번역 관련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자유간접문체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에서 국문으로 자유간접문체 번역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즉, 자유간접문체가 오랜 기간 사용되고 발전된 영어로의 번역 역시 번역자가 원문의 자유간접문체의 효과와 맥락을 파악하지 않는 한 용이한 전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의식구현의 양식으로서 자유간접문체의 영한번역 양상을 살피기 위한 분석의 틀은 기드온 투리(Gideon Toury)의 기술번역학 접근법이 제공하고 있다. 투리(1995)는 번역학을 가정과 이론의 모델에 기반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실증적(empirical) 학문으로 보며(p. 1), 번역 연구는 가설적(hypothetical)이거나 처방적(prescriptive)인 접근이 아닌, 실제 번역 현상에 기반을 두고 그 현상을 이해하며 설명하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번역적 현상의 기술을 기능(function), 결과(product), 과정(process)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p. 19) 투리의 접근을 번역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 3.1 분석 대상

기술번역학 접근법에서 분석 대상 텍스트의 선정 기준은 기능, 결과, 과정 세 요소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살필 수 있는 원문과 번역문이다(Toury, 1995, p. 13). 본 연구의 경우 대상 텍스트의 기능은 소설문학으로서 서사적, 주제적, 미학적 감흥의 전달일 것이며, 특히 현대소설의 내면서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자유간접문체가 그 결과로, 이를 번역에 담아낸 양상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 텍스트 선정 뒤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세 요소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p. 11)을 파악하여 복잡한 번역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 기술적 연구의 절차이다.

이를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은 현대의 주요 영미권 소설가 중 스토리텔링, 즉 플롯 중심의 서사가 아닌, 치밀한 내면 서사를 기반으로 미학적 성취와 주제적 깊이로 인정받은 작가들의 밀도 높은 단편소설로, 3인칭 시점을 통하여 구현되는 자유간접문체가 기법적으로 두드러진 4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폭넓은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세기 후반에서 현재에 걸쳐 영미권 안에서도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배경에서 창작해온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번역 텍스트 역시 다양한 접근법을

살피기 위해 모두 다른 번역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유간접문체 번역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2000년 이후의 출간본으로 제한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 작품의, 혹은 한 번역가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간접문체의 영한번역 양상을 가급적 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기초조사 수행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이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편의 단편소설 및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미국 작가 존 치버(John Cheever, 1912-1982)의 1964년 단편 「The Swimmer」는 미국 현대 단편소설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작품으로, 치버는 이 작품이 수록된 단편집으로 1978년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번역본 「헤엄치는 사람」은 2008년 『존 치버 전집』의 일부로 출간된 총 4권의 『존 치버 단편집』 중 『사랑의 기하학(황보선 역)』에 실렸다.

캐나다 작가 앨리스 먼로(Alice Munro, 1931-2024)의 「To Reach Japan」은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한 해에 발표된 후기작으로, 50년 넘는 기간 동안 단편 소설만을 집필한 작가의 완성도 높은 구성미를 보여준다. 번역본 「일본에 가 닿기를」은 2013년 출간된 단편집 『디어 라이프(정연희 역)』에 실렸다.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 1968- )의 『Small Things Like These』는 단편소설 한 편으로 2022년 부커(Booker)상 후보에 올라 주목받은 작품으로, 2023년 출간된 번역본 『이처럼 사소한 것들(홍한별 역)』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영미권 소설 중 하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 J. M. 콧시(J. M. Coetzee, 1940- )의 「The Pole」은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의 2023년 최신작으로, 번역본 「폴란드인」은 2025년 출간된 중단편집 『폴란드인(왕은철 역)』에 실린 표제작이며 번역자는 콧시의 초기작부터 오랜 기간 번역을 맡아왔다.

### 3.2 분석 방법 및 기준

우선 선정된 4편의 원작 안에서 자유간접문체의 의식 구현 양식 3가지 하위 범주인 자유간접사고, 지각의 재현 그리고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

이 하나의 문단 혹은 이어지는 몇 개의 문단 안에서 모두 사용되어 인물의 내면 갈등이 선명하게 극대화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각 작품 안에서 자유간접문체의 내면서사 효과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발췌문에는 3종의 해당 양식이 사용된 문장을 분류하여 표기한 뒤 이에 호응하는 번역문을 표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런드퀴스트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3가지 의식구현 양식의 개별적인 특징과 지표들로, 아래와 같다.

자유간접사고(*free indirect thought*, 이하 FIT로 표기)는 3인칭 화자를 통하되 직접화법을 연상케 하는 구어적 표현 구문과 담화 패턴으로 인물의 생각을 담아내는 양식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구어체, 즉 입말에 가까운 문체의 사용이며, 구어체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혹은 언어화되기 바로 전 단계의 의식과 사고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양식이다(Rundquist, 2014, p. 164). 구어체라는 지표가 모호한 동시에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양식이며, 인물의 정돈되지 않은 주관적 관점의 사고를 그 인물의 목소리에 가깝게 정제 없이 담아내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듯한 구어체의 사용이 이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 된다.

지각의 재현(*represented perception*, 이하 RP로 표기)은 인물의 주관적 관점과 표현 방식을 통해 소설 속 세계를 묘사하는 양식으로, 주요 지표는 인물의 관점 중심으로 사용되는 각종 지시어, 감각적 묘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모방어(*mimetic language*)와 비유, “felt” “appeared” 등 감각과 감정을 기술하는 심성 동사(*mental verb*)의 사용 등이다. 자유간접사고(FIT)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머릿속에서 언어화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각 그리고 의식 속의 감각이 드러나는 양식으로, 지각의 대상은 현실 세계뿐 아니라 인물이 상상하는 상황 및 세계 모두를 아우르며, 인물의 행동,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 역시 포함한다(Rundquist, 2014, p. 166).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onsonant psycho-narration*, 이하 CPN으로 표기)은 전통 소설의 3인칭 화자와와 인물-화자 불일치 서술과는 차별화되는, 화자와 인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3인칭으로 인물의 심리를 서술

하는 양식으로, 여기서 서술되는 심리는 감정, 의도, 목적, 동기, 정신상태 등을 포괄한다. 즉, 3인칭 화자가 인물 밖에서 서술하는 느낌 없이 지각의 재현(RP)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비유가 사용되며, 주요 지표로는 “felt,” “seemed,” “believed,” “thought” 등의 심성 동사를 비롯하여 “although,” “nevertheless,” “thus” 등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접속사를 들 수 있다 (Rundquist, 2014, p. 166).

이러한 특징과 지표는 투리의 기술번역학적 접근의 3가지 요소인 기능(function), 결과(product), 과정(process) 중 결과에 해당하는 구체적 구현 양식으로, 이를 토대로 원작의 텍스트적 특징에 호응하는 번역 양상, 즉 과정을 아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1) 자유간접사고, 지각의 재현,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로 구성된 자유 간접문체의 기본 형식인 3인칭 시점이 원작의 서사적 시제와 일치된 형태로 번역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 2) 각 양식의 주요 지표와 그 효과가 번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 3) 각 양식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정확하고 밀도 있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위의 기준 중 1), 2)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3)은 관찰된 번역 양상이 원작과 번역문의 기능, 즉 문학작품의 서사적, 주제적, 미학적 효과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기준이다. 즉, 오역을 찾아 번역문의 정확성을 판정 혹은 평가하는 목적이 아닌,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번역 양상을 런드퀴스트가 강조한 맥락적, 의미론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번역 텍스트 분석

인용하여 분석할 4편의 발췌문과 이에 호응하는 번역문의 문장들은 아

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간접문제 양식에 맞춰 분류, 표기되었다.

우선 원문 본문에서 관찰되는 자유간접문제를 3가지 양식 F (FIT: 자유간접사고), R (지각의 재현: RP), C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 CPN)으로 분류한 뒤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F1, F2 등으로 해당 문장 앞에 표기했으며, 주요 지표가 선명하게 구현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원문의 분류에 호응하는 문장 혹은 부분에 동일하게 표기를 통일하였으며, 원문에서 관찰된 지표가 번역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 4.1.1 「The Swimmer」, 「헤엄치는 사람」

미국 60년대 교외 중산층 주택가의 풍속도를 오디세우스의 귀향 서사를 모티브 삼아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로 풀어낸 단편소설으로, 자유간접문제를 적극 사용하여 신화적 스케일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 서사를 그려내 3인칭 화자의 유연성을 확인시켜준다. 신화적 원형성을 품은 중산층 가장 네디 메릴의 귀향 여정은 자신의 삶의 무대인 뉴욕 교외 주택가 여러 이웃들의 수영장을 수로로 삼아 헤엄쳐 집으로 돌아가는 계획으로, 작품의 서사는 마치 카메라 한 대가 동네 전체를 조감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내면을 자유자재로 담아내는 듯한 방식으로 펼쳐진다(Matthews, 1992, p. 95).

아래 발췌문에서 주인공은 이웃들 뒷마당의 수영장을 모두 통과하여 동네를 가로지르는 여정 중, 한 집의 수영장 물이 모두 빠져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예시 1>

ST1: (C1)This breach in his chain of water disappointed him absurdly, and (R1)he felt like some explorer who seeks a torrential headwater and finds a dead stream. (C2)He was disappointed and mystified. (F1)It was common enough to go away for the summer but no one ever drained his pool. (F2)The Welchers had definitely gone away. (R2)The pool furniture was folded, stacked, and covered with a tarpaulin. The bathhouse was locked. (R3)All the windows of the house were shut, and when he went around to

the driveway in front he saw a FOR SALE sign nailed to a tree. (F3)When had he last heard from the Welchers—when, that is, had he and Lucinda last regretted an invitation to dine with them? (C3)It seemed only a week or so ago. (C4)Was his memory failing or had he so disciplined it in the repression of unpleasant facts that he had damaged his sense of the truth? (R5)Then in the distance he heard the sound of a tennis game. (C5)This cheered him, cleared away all his apprehensions and let him regard the overcast sky and the cold air with indifference. (F4)This was the day that Neddy Merrill swam across the county. (F5)That was the day! (R6)He started off then for his most difficult portage. (Cheever, 1978, p.606-607)

TT1: (C1)물의 고리가 끊긴 것이 터무니없이 실망스러워서 (R1)그는 마치 자신이 용솨음치는 원류를 찾아 나섰다가 말라붙은 개울을 보게 된 탐험가 같은 느낌이 들었다. (C2)그는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F1)여름 동안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때껏 누구도 수영장의 물을 뺀 적은 없었다. (F2)웰처 부부는 아주 떠나버린 모양이었다. (R2)수영장에 딸린 가구들은 접힌 채 쌓여 방수천으로 덮여 있었고 탈의장 문은 잠겨 있었다. (R3)또 그 집의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는데 그는 집을 돌아 앞쪽 진입로로 들어섰다가 한 나무에 ‘매물’이란 팻말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F3)그가 웰처 부부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언제였더라? 그와 루신다가 그들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던 그때였나? (C3)그 일은 불과 일주일 전쯤 있었던 것 같았다. (C4)그의 기억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유쾌하지 못한 사실 들을 억압하는 데 너무 깊이 들어서 진실에 대한 감각이 손상된 것이었을까? (R5)어딘가 멀리서 테니스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C5)그 소리에 다시 기분이 풀린 그는 근심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잔뜩 흐린 하늘과 쌀쌀한 날씨를 태평하게 바라보았다. (F4)그날은 네디 메릴이 그 지방을 헤엄쳐서 가로지르는 날이었다. (F5)바로 그날이었다! (R6)그는 곧 가장 건넌기 어려운 연수로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Cheever, 2008, p.241-242)

먼저 자유간접사고(FIT)의 번역을 살펴보면, (F3)의 3인칭으로 자문하는 의문문이 “언제였나?” “언제였을까?” 등의 3인칭 어미가 아닌 “언제였더라?” 즉 1인칭 어미로 번역되어 자유간접문체의 기본양식인 3인칭 시점이

변형되었다. 또한 원문에서는 여기서 의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꼬리를 무는 구조로 “when”이 나온 후 문장 부사 “that is”로 호흡을 끊어 앞의 의문문을 부연하는 구조인데, 번역은 두 개의 개별 문장으로 처리되고 앞의 의문문이 1인칭 목소리에 가깝게 변형되면서 오역이 발생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에 따른 부연구조 및 의미를 선명하게 반영한 예시<sup>1)</sup>는 다음과 같다: “웰쳐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게—그 말은, 자신과 루신다가 웰쳐 부부의 저녁 초대를 마지막으로 거절한 게 대체 언제였을까?”

(F1)과 (F2)의 경우 연이은 두 문장 모두 3인칭 과거 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술형 종결어미(“-었다”)를 사용하여 자유간접문체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자유간접사고(FIT)의 주요 지표인 구어적 구문 표현 “go away for the summer”가 단어 뜻 그대로 직역되어, 주관적 관점의 지표인 수사적 구문 “no one ever”가 자연스러운 구어적 부사 “이때껏”으로 선명하게 반영됐음에도 전체적인 의미를 비롯한 “definitely”의 주관적인 어조가 불명확하게 번역되었다. 주관성 및 구어적 지표를 적극 반영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수영장 물을 다 빼 버리는 건 듣도보도 못한 일이었다. 분명 어디 멀리 간 모양이었다.”

반면 (F4)와 (F5)를 보면 문장 구조의 반복을 살리면서 (F5)에서의 주어 생략으로 감탄문의 주관적 어조의 구어체 효과를 한국어 구어체로 적극 반영하여 자유간접사고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F4의 지시어 사용 (“this,” “the county”)이 번역에는 “그날,” “그 지방”으로 거리감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오역도 발생하여 문장 전개가 어색해졌음을 볼 수 있다. 인물의 의식에 가까이 들어간 “this”와 “the”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이 바로 네디 메릴이 이 동네를 헤엄쳐 가로지르는 날이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지각의 재현(RP)이 구현된 문장 중 (R1)의 “그는 마치 자신이 용솟음치

1) 본 연구의 번역 예시는 모범적 혹은 처방적 대안이 아니며, 분석 기준이 되는 3가지 요소(기능, 결과, 과정)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해당 원문에서 관찰된 자유간접문체의 지표를 선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다. 또한 자유간접문체의 지표를 번역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구조적, 표현적 차이로 인한 구체적 장애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번역 예시를 통하여 직접 탐색하고자 한다.

는 원류를 찾아 나섰다가 말라붙은 개울을 보게 된 탐험가 같은 느낌이 들었다”의 경우, 지각의 재현(RP)의 주요 지표인 비유와 묘사를 국문으로 원문과 유사하게 운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반면, (R2)의 “수영장에 딸린 가구들은 접힌 채 쌓여 방수천으로 덮여 있었고 탈의장 문은 잠겨 있었다”는 리듬감과 시각적 선명함이 살아있는 원문을 정보 중심의 설명문 구조로 축약, 변형한 경우이며, (R6)의 “그는 곧 가장 건너기 어려운 연수로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묘사하는 지각의 재현 원문이 한국어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주어 대명사 사용으로 시점이 어색해졌고, 주관적 묘사가 극대화된 “his most difficult”가 객관적 평가처럼 읽히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으로 번역되어 인물과 화자가 분리된 효과를 낳는다. 지표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각의 재현 효과를 살린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 앞에 펼쳐질 가장 고되고 험난한 육로 여정에 나섰다.”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 중 첫 번째 (C1)의 경우 “물의 고리가 끊긴 것이 터무니없이 실망스러워서”는 이 작품의 신화적 모티브가 담긴 추상적 비유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고, 구어적 부사를 활용하여 주관적인 어조를 적극 살리고 있는 반면, 원문의 지시어 “this”가 누락되어 인물과 화자의 일치감이 감소한 것이 보여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에서 역시 지각의 재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시어가 주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정도를 문장 앞에 추가만 하여도 인물-화자의 일치감이 크게 상승한다.

(C5)“그 소리에 다시 기분이 풀린 그는 근심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잔뜩 흐린 하늘과 쌀쌀한 날씨를 태평하게 바라보았다”는 문장 자체는 유려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원문의 “apprehension,” “regard,” “with indifference” 등의 문어적 추상명사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로 교체된 점에서 원문의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이 번역문에서는 지각의 재현(RP)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문은 등장인물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 지각한 문장이 아닌, 테니스 경기 소리에 의해 다시 고양된 마음상태를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이다.

이상 위의 분석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주인공 메릴이 여정에

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호기로우과 의구심 사이에서 갈등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서둘러 자기 기만으로 갈등을 덮는 심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원저자는 자유간접문체의 3가지 하위 범주를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간접문체의 효과를 세밀하게 인지하지 않은 오역 혹은 주관성의 객관화는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 더 나아가 내면 서사 전반에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4.1.2 「To Reach Japan」, 「일본에 가 닿기를」

먼로는 서사 속 시간의 흐름과 의식의 전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사화하는 소설작법에 집중했던 작가로, 1인칭으로 완성한 초고를 3인칭으로 퇴고하는 등 화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시점을 다루는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하였고(Duncan, 2011, p. 1), 후기작인 이 작품에서도 자유간접문체를 통하여 3인칭 화자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은 어린 딸의 어머니이자 갓 등단한 시인 그레타로, 남편의 장기 출장 동안 딸과 함께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낯설고 먼 도시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다. 아래 발췌문은 기차여행 중 충동적 일탈로 인해 아이를 잃을 뻔한 사건이 벌어진 후 이어지는 부분이다.

<예시 2>

ST2: (C1)This was so terrible, her thoughts of what might have happened so terrible. (R1)The child was stiff with protest, keeping away from her.

(F1)Someone would have found Katy, surely. (F2)Some decent person, not an evil person, would have spotted her there and carried her to where it was safe. (R2)Greta would have heard the dismaying announcement, news that a child had been found alone on the train. (R3)A child who gave her name as Katy. (R4)She would have rushed from where she was at the moment, having got herself as decent as she could, she would have rushed to claim her child and lied, saying that she had just gone to the ladies' room. (C2)She would have been frightened, but she would have been spared the picture she had now, (R5)of Katy sitting in that noisy space, helpless between the cars. (R6)Not crying, not complaining, as if

she was just to sit there forever and there was to be no explanation offered to her, no hope. (R7)Her eyes had been oddly without expression and her mouth just hanging open, (C3)in the moment before the fact of rescue struck her and she could begin to cry. (C4)Only then could she retrieve her world, her right to suffer and complain. (Munro, 2012, p. 26)

TT2: (C1)이번 일은 정말로 끔찍했다.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들을 생각 하니 정말로 끔찍했다. (R1)아이는 여전히 뻗뻗이 저항하며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F1)틀림없이 누군가 케이티를 발견했을 것이다. (F2)악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 갔을 것이다. (R2)그레타는 기차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는 당황스러운 안내 방송을 듣고 혼쫓이 빠지게 놀랐을 것이다. (R3)케이티라는 이름을 낸 아이를 발견했다는 방송을. (R4)그레타는 그때 어디에 있었건 최대한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리나케 달려갔을 것이다. 부리나케 달려가 그녀의 아이라고 말하며 방금 화장실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C2)그녀는 놀라고 겁을 먹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은 꺾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R5)객차들 사이 시끄러운 공간에 망연히 앉아 있는 케이티. (R6)울지도 않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어떤 설명도 희망도 없이 그곳에 영원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R7)묘하게 표정이 없는 눈동자와 살짝 벌어진 입, (C3)그러다 아이는 자기가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기 시작한다. (C4)그제야 아이는 자기 세상을 되찾는다. 괴로워하고 불평할 권리를 되찾는다.

(Munro, 2013, p. 36-37)

자유간접사고(FIT)의 번역부터 살펴보면 (F1)로 시작하는 문단은 앞의 문장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들,” 즉 그레타가 기차에서 만난 청년과 함께 있는 사이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벌어졌을 일들을 상상하는 장면인데, (F1)은 그레타의 상상이 지각의 재현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직전 스쳐가는 순간적인 생각이자 내적 갈등의 포착이다. 원문 “Someone would have found Katy, surely”에서 찾을 수 있는 주관적 어조의 구어체 지표는 부사 “surely”로, 첨표로 끊긴 호흡이 구어적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려준다. 지시어 “someone,” 가정법 조동사 “would” 등도 주관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앞 문단의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1)과 지각의 재현(R1)에서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의식의 층위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번역문에는 구어체와 주관성이 반영되지 않아 자유간접사고가 아닌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로 읽힌다. 그레타가 자신이 케이트를 먼저 찾지 못했어도 그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어조로 구어체와 맥락적 지표를 반영한 번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도 설마, 누구라도 케이트를 찾았을 것이다.”

지각의 재현(RP)의 첫 번째 문장 (R1)의 경우 부사 “뻗뻗이”가 원문의 생생한 묘사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있고, (R6)의 “울지도 않고, 칭얼거리지도 않고”는 원문의 반복과 리듬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R2)에서 (R4)로 이어지는 문장들은 앞에서 다룬 (F1)에 이어지는 그레타의 상상 속의 장면 묘사인데 (F1)이 맥락적으로 선명하게 번역되지 않은 영향으로, 상상 속 상황의 초점이 흐려졌다. (R2)의 “dismaying”은 그레타와 청년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보호자 없이 발견되었다는 안내를 듣고 놀라는 반응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아이 이름이 케이트임을 알게 되어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고 달려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상상인데, 충격과 죄책감에 쌓인 그레타의 의식 속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이 남자와 있었음을 명시하는 대신 “where she was(자신이 있던 곳)”라고 모호하게 지각하고 있는 상황이 번역에서는 “어디에 있었건”이라고 부정확하게 처리되어 있다.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이 관찰되는 문장을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 상상의 묘사를 이어가던 중 (C2)에서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남은 장면보다 끔찍할 수는 없었을 거라며 그 끔찍한 장면 속 케이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각의 재현(RP) 문장 (R5), (R6), (R7)으로 전개된다. 그 다음 (R7)는 문장 중간에서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로 전환한다: (C3)“in the moment before the fact of rescue struck her and she could begin to cry. (C4)Only then could she retrieve her world, her right to suffer and complain.” 즉, 여기서 “she”는 주인공 그레타가 아닌 딸 케이트이며, (C3)와 (C4)는 주인공인 그레타가 추측하는 케이트의 심리서술로 전환하여 자유간접문체의 유연성과 다음성(polyphony)을 확인시켜주며, 케이트라고 명시하지 않고 대명사 “she”를 사용한 이유도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번역에서는 먼로의 이러한 서사기법 상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뢰

하지 못한 듯, 그레타의 시점에서 사용할 명칭인 “아이”로 명시를 하고, 시제를 현재로 바꾸어, 그레타가 관찰하는 지각의 재현(RP)의 문장으로 변형하고 있다.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의 지표인 조동사와 수사구문의 어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번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드디어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오기 바로 전의 모습. 그 순간을 마주한 뒤에야 자신의 세상을, 또한 고통과 불평을 토로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일탈 그리고 그 여파를 극적으로 그리는 사건 중심의 서사가 전혀 아닌,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내면 서사이며, 위의 발췌문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에 대한 단순한 도덕적, 감정적 반응이 아닌 가정과 상상을 토대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밀도 있게 그리고 있다. 그렇기에 번역이 자유간접문체를 섬세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사건서사와 내면서사 사이에서 길을 잃고 인물의 심리적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

#### 4.1.3 『Small Things Like These』,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작품은 200여년 동안 아일랜드 여러 지역의 수녀원에서 탈선 소녀,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감금, 착취한 막달렌 세탁소 사건을 모티브로, 1980년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석탄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인 주인공 빌 펠롱이 크리스마스 즈음 석탄 배달을 간 수녀원에서 감금된 소녀를 우연히 발견하며 벌어지는 며칠 동안의 일을 그린다. 신랄한 사회 고발을 담고 있는 소설이지만, 서사 구조는 한 인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자기 탐색과 윤리적 갈등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Hage, 2022). 아래 발췌문은 주인공 펠롱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출생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수녀원에서 목격한 상황을 다시 반추하는 장면이다.

<예시 3>

ST3: (R1)Before he got back into the lorry and pulled the door closed, the yard light went off and (C1)a type of emptiness came over him. (R2)For a while he sat watching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tops of the bare trees,

the flinching branches, taller than the chimney pots, then he reached out and ate a mince pie from the brown paper. (C2)For a good half hour or more he must have sat there, going over what the woman inside had said, about the likeness, letting it stoke his mind. (F1)It took a stranger to come out with things.

(R3)At some point later, an upstairs curtain moved, and a child looked out. (C3)He made himself reach for the key, and started the engine. Driving back out the road, (C4)he pushed his fresh concerns aside and thought back over the girl at the convent. (C5)What most tormented him was not so much how she'd been left in the coal shed or the stance of the Mother Superior; the worst was how the girl had been handled while he was present and how he'd allowed that and had not asked about her baby—(F2)the one thing she had asked him to do—and how he had taken the money and left her there at the table (R4)with nothing before her and the breast milk leaking under the little cardigan and staining her blouse, and how he'd gone on, like a hypocrite, to Mass. (Keegan, 2022, p. 86-87).

TT3: (R1)펼롱이 트럭에 올라타 문을 닫기 전에 마당 불이 꺼졌고 (C1)공허함이 펼롱을 덮쳤다. (R2)한동안 펼롱은 그대로 앉아 굴뚝 통풍관보다 더 높이 솟은 햇빛은 나무 우듬지, 바람에 움찔거리는 나뭇가지를 지켜보다가, 갈색 종이로 손을 뺀어 민스파이를 하나 집어 먹었다. (C2)거의 반 시간 정도, 어쩌면 더 오래 그렇게 앉아서 여자가 한 말, 달았다는 말을 곱씹어 보며 생각 속에서 불을 지켰다. (F1)생관 남을 통해서 알게 되다니.

(R3)한참 뒤 위층 커튼이 움직이더니 어린아이가 밖을 내다봤다. (C3)펼롱은 억지로 자동차 키에 손을 뺀어 시동을 걸었다. 다시 길로 나와 (C4)펼롱은 새로 생긴 걱정은 밀어놓고 수녀원에서 본 아이를 생각했다. (C5)펼롱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펼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F2)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수녀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R4)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젓이 새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 었다. (Keegan, 2023, p. 98-99)

자유간접사고(FIT)는 2번 관찰되는데, (F2)의 경우 긴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의 중간에 방백처럼 삽입된 문장 단편(斷片)으로, 번역에서도 단편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동시에 “단 한 가지 일”로 구어체 지표와 주관성을 적극 살리고 있다. (F1)“It took a stranger to come out with things”는 앞의 긴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이 이어진 후 펠롱이 마음속으로 내뱉는 짧은 한 마디로, 맥락이 생략되어 있으며 어휘도 의도적으로 모호하다. 펠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소극적인 인물로, 이런 그의 내면이 3인칭 화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형태의 문장이다. 번역문 (F1)“생판 남을 통해서 알게 되다니.”에서 “생판 남”은 구어체 지표를 적극 살린 번역으로 해당 문장의 어조와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담아낸 반면, 문장의 어미는 1인칭 구어체 어미가 사용되어 3인칭 자유간접문체가 펠롱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듯한 자유직접화법(free direct discourse)으로 변형되었으며, 이와 함께 문장 전체의 뜻과 어조도 부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자유간접사고의 양식과 문장의 의미를 모두 반영한 번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생판 남이 들춰내서야 알게 되는 일도 있었다.”

지각의 재현(RP)의 경우 (R4)“텅 빈 식탁에”를 보면 주요 지표인 주관적 묘사 구문이 매끄럽고 생생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R2)“he sat watching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tops of the bare trees, the flinching branches, taller than the chimney pots”에서 선명하게 관찰되는 자음운과 모음운 등의 운율(밑줄로 표시)과 주인공의 시선을 그대로 따르는 바람-나무 꼭대기-가지-굴뚝으로 천천히 영상처럼 이어지는 전개가 이 문장의 감각적 표현을 극대화하는데, 번역문에서 운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나 시선의 이동이 설명적 호흡으로 축약되어 감각적 효과 역시 축소되었다.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에서는 (C1)“공허함이 펠롱을 덮쳤다”와 (C2)“거의 반 시간 정도, 어쩌면 더 오래 그렇게 앉아서 여자가 한 말, 답하겠다는 말을 곱씹어 보며 생각 속에서 불을 지폈다” 두 번역문에서 주인공 “펠롱”을 이름으로 명시한 문장과 주어가 생략된 문장의 차이를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다. 원문에서는 인물과 화자의 일치를 위하여 모두 “he,” “him” 등의 대명사로 주인공을 칭하고 있는데, (C2)를 보면 국문에서는 주어를 생

략하는 것이 영어의 대명사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영환 2018: 236). 이어지는 (C3), (C4) (C5)에서도 모두 번역문은 주어를 “펼롱”으로 명시하여 인물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거리감은 주인공 내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이 불안정한 문장 구조를 통해 처음으로 생생하게 드러나는 (C5)에 이르러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 (CPN)의 주관성 지표 “most” “not so much how” “the worst”가 모두 번역에서 약화되어 “펼롱을 괴롭힌 것은 - 가 아니라 - 는 사실이었다”로 객관화되었다. 지표를 선명하게 반영하여 문장의 뼈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괴로운 건, 아이가 그렇게 석탄광에 갇혀 있던 모습이나 원장님의 태도보다도, 그보다도 훨씬 괴로운 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어떻게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또 자신은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봤는지...(중략)...내버려두고 나와서는 어떻게 그런 위선자같은 모습으로 미사까지 보러 갈 수 있었는지, 그게 가장 끔찍했다.”

위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선 2개의 분석에서와 같이 자유간접문체가 객관화된 설명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면 주인공에게 중요한 내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독자가 포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발췌문에서는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주한 불의의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내면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객관화된 문장으로 전달되면 내면 서사보다는 작품의 사회적, 도덕적 색채가 더 두드러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4.1.4 「The Pole」, 「폴란드인」

쿿씨는 자전적 소설 3부작을 포함한 15권의 장편소설을 모두 3인칭 시점으로 집필한 작가로, 그만큼 3인칭 서사기법, 즉 자유간접문체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서사적 양식임을 알 수 있다(Lenta, 2003, p. 157).

또한 이 작품은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 중 유일하게 3인칭 현재시제로 진행되는 작품인데, 현재시제는 화자의 해설, 메타서사 설명, 내면 독백, 간접화법 등 기존 과거 시제가 수행하던 서사의 모든 구성을 현재시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면적 플롯과 내면적 서사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효과를 가지며(정하연, 2022, p. 211-212) 인물과 화자의 일치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서사기법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주인공 베아트리스는 바르셀로나 한 공연장의 후원인으로, 연주자로 초대된 폴란드 피아니스트 비톨트가 베아트리스를 사랑하게 되며 벌어지는 줄거리가 표면 서사로 전개되며, 내면서사는 베아트리스의 의식을 따라간다. 아래 발췌문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이 피아니스트에게 받은 쇼팽 야상곡 연주 CD를 들은 뒤 이어지는 4개의 문단이다.

<예시 4>

원문: (C1)As before, she is disappointed. (R1)She finds herself chilled by —(F1)what shall she call it?—the style, the approach, the mentality of the interpreter. (R2)So dry, so matter-of-fact! (R3)Each piece held up for inspection, examined, then, with the final chord, folded away and interred.

(C2)Perhaps the truth is that, even at the time when he made the recording ((R4)she checks the notes on the CD: 2009, they say), the Pole was too old in spirit for music like this, music that belongs to more ardent souls.

(F2)Something to do with touch. (R5)She recalls the touch of his hand in the taxi on the evening they met; she recalls the touch of his lips to her cheek when he greeted her Girona. (R6)Like being touched by dry bone. (R7)A living skeleton. (R8)She shivers. (F3)She too has a skeleton, but unlike his hers is ghostly, impalpable.

(C4)Is that, then, her final verdict on him: too dry, too lacking in ardour? (C5)Is that what she wants in a man: ardour? (R9)If ardour were to arrive tomorrow, out of the blue, and announce itself—real, impetuous ardour—(C6)would there be room for it in her life? (C7)She doubts it. (Coetzee, 2023, p. 38-39)

번역문: (C1)전처럼 그녀는 실망한다. (F1)뭘랄까, (R1)스타일, 접근 방식, 해석자의 성향에 오싹함이 느껴진다. (R2)너무 메마르고 직선 적이 다! 하나하나의 곡을 들어 올려 조사하고 검토하고. 마지막 코드와 함께 접어서 묻어버린다.

(C2)어쩌면 폴란드인은 녹음할 때조차((R4)CD를 확인해보니 2009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음악, 즉 더 정열적인 사람들에 속하는 음악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던 건지 모른다.

(F2)감촉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 (R5)그녀는 그들이 만난 날 저녁, 택시에서 그의 손이 닿던 감촉을 생각해본다. 그녀는 그가 헤로나에서 그녀를 반겼을 때 그녀의 볼에 닿던 입술의 감촉을 생각해본다. (R6)마른 뼈가 닿는 것 같은 느낌. 살아있는 해골이랄까. (R8)오싹하다. (F3)그녀에게도 해골이 있다. 그러나 그의 것과 다르게, 그녀의 것은 흐릿하고 만져지지 않는다. (C4)그렇다면 너무 메마르고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그녀의 최종적인 평가일까? (C5)그녀가 남자에게서 원하는 것은 열정일까? (R9)열정이 내일이라도 불현듯 나타나 격렬한 진짜 열정임을 드러낸다면, (C6)그녀의 삶에는 그것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 (C7)그럴 것 같지 않다. (Coetzee, 2025, p. 66-67)

자유간접사고(FIT) 중 (F1)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어적 구문으로, “뭐랄까”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3)“She too has a skeleton, but unlike his hers is ghostly, impalpable”의 경우, 앞서 다른 텍스트에서와 유사하게 지각의 재현(RP)에서 갑작스럽게 자유간접사고(FIT)로 전환하면서 번역이 길을 잃기 쉬운 문장이다. 폴란드인이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살아 움직이는 해골” 같았다는 비유에 이은 내면의 사고이며, 주인공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대명사 “그녀”로 시작하면서 객관적인 설명으로 읽혀서 의미가 혼란스러워졌다. 구어체와 주관성 지표를 반영한 번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몸에도 해골은 있지만 이 남자의 뼈와는 전혀 달라, 환영과도 같고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다.”

지각의 재현(RP)의 경우 역시 주어 대명사 생략 여부로 자유간접문제 지표의 반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R4)“CD를 확인해보니 2009년이라고 되어 있다” (R8)“오싹하다” 두 경우 모두 원문의 주어 “she”가 생략되어 지각의 구현이 생생한 현장감을 갖는다. 또한 (R6)“마른 뼈가 닿는 것 같은 느낌”은 원문의 문장 단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감각적인 묘사의 여운을 주며, (R9)에서 “내일이라도 불현듯 나타나”의 매끄러운 구어적 구문으로 지각의 재현(RP)의 주관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R5)“그녀는 그들이 만난 날 저녁, 택시에서 그의 손이 닿던 감촉을 생각해본다. 그녀는 그가 헤로나에서 그녀를 반겼을 때 그녀의 볼에 닿던 입술의 감촉을 생각해본다”를

보면 주어 대명사 “그녀,” “그들,” “그”의 사용으로 지각의 주체인 인물이 객관화되었고, 술어 역시 원문은 “recalled”인 반면, 번역은 더 의식적이고 객관적인 “생각해본다”를 사용하였으며, 세미콜론으로 이어지는 댕구 구조가 두 개의 문장으로 끊어지면서 문장 흐름이 딱딱해졌다. 지각의 재현에 초점을 맞춘 번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처음 만난 날 저녁 택시 안에서 맞닿았던 손길, 헤로나에서 인사를 나누었을 때 불에 닿았던 입술의 감촉이 떠올랐다.”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의 경우, 원문의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C4)에서 (C7)까지 모든 문장이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인데 흥미롭게도 번역문에서는 이 문단이 앞의 문단과 합쳐져 앞서 다룬 (F3)에 뒤어진다. 번역자가 자유간접사고(FIT)와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의 효과와 맥락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F3)의 번역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의미가 선명한 (C4)로 곧장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단을 합친 영향으로 (C4), (C5) 모두 원문의 콜론과 어순이 반영되지 않아 호흡이 훨씬 가파르고 어조는 딱딱해졌다. 주관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인공의 갈등을 더 선명하게 담아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 남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지나치게 메마르고, 열정은 한참 모자라다는 것인가? 자신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그럼 열정인가?”

위의 발췌문은 특히 작품 초반부에 이 소설이 베아트리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으로,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두 남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인공의 사고와 심리를 따라 읽어나갈 것을 안내하기에 자유간접문체의 결이 번역에 반영되는 것이 독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 4.2 번역의 양상, 번역의 가능성

앞서 살핀 4편의 인용문에서 살핀 번역 양상을 정량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표 1  
의식의 구현 양식 발생 분포 및 번역 양상 분석

작품	의식구현 양식	발생 회수 (ST)	양식 변형 (TT)	의미 오류 (TT)	ST 지표 총갯수 대 TT 반영회수
ST1 The Swimmer  TT1 헤엄치는 사람	자유간접사고(FIT)	5	0	2	23 - 7
	지각의 재현(RP)	6	0	0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CPN)	5	1	0	
ST2 To Reach Japan  TT2 일본에 가 닿기를	자유간접사고(FIT)	2	1	0	27 - 4
	지각의 재현(RP)	7	0	2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CPN)	4	2	1	
ST3 Small Things Like These  TT3 이처럼 사소한 것들	자유간접사고(FIT)	2	1	1	18 - 9
	지각의 재현(RP)	4	0	0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CPN)	5	0	0	
ST4 The Pole  TT4 폴란드인	자유간접사고(FIT)	3	0	1	18 - 8
	지각의 재현(RP)	9	0	0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CPN)	6	0	0	

각 작품 별로 3가지 의식구현 양식의 번역 양상을 먼저 비교했을 때, 지각의 재현(RP) 번역에서는 양식적 변형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고, 오역 역시 지각의 재현의 경우 ST2에서만 1회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도 앞서 텍스트 분석에서 상세하게 살폈듯 지각의 재현 자체의 오역이기보다는 바로 앞의 자유간접사고(FIT)가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CPN)로 변형되면서 이어지는 장면의 맥락이 어긋난 경우이다. 그 외의 변형과 오역은 모두 자유간접사고와 인물-화자 일치 심리 서술의 번역에서 관찰되었는데, 그 분포를

보면 자유간접사고는 4편의 텍스트에서 모두 변형 혹은 오역이 발생하여, 작품과 번역자를 불문하고 형식과 의미의 선명하고 정확한 반영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양식은 자유간접사고임을 볼 수 있다.

이 통계를 앞서 살핀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연결하면, 자유간접사고의 양식이 구어체 지표의 반영 없이 번역될 경우 딱딱한 설명문처럼 구현되어 맥락을 잃거나, 오역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4개의 발췌문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그만큼 자유간접사고의 지표가 구어체라는 포괄적인 특징을 지녀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들며, 암시적이며 함축적이기에 원문 속 지표의 인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식했다 하더라도 도착어로의 구현에서 정확성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4편의 자유간접사고의 번역 사례에서 모두 투리가 제시한 의미적, 주제적 효과인 기능과 텍스트적 양식인 결과가 모두 번역의 과정과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 마지막 칸의 통계는 발췌문 원문과 번역문에 각각 밑줄로 표시된 ST의 선명한 양식 지표의 총 개수와 TT에 지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의 총 개수를 단순 비교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반영 비율이 15%에서 44% 사이에 분포하여, 자유간접문체의 서사적 효과가 대부분 약화 또는 제거되어 각 양식적 지표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반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운율과 리듬, 비유의 선명함, 주어 생략을 통한 구어체 구현 등 의식구현 양식의 지표들을 유려한 한국어로 적극적으로 구현해낸 경우도 4편의 번역문의 세부 분석에서 모두 구체적으로 관찰되어 자유간접문체의 효과적인 번역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살폈듯이 근대화 과정에서 국문 소설 문장의 문어체화에 의해 현재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구어체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문어체로 번역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보이지만, 위의 분석에서 확인된 구어체의 효과적 번역의 실패에서, 또한 본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 예시를 통하여 텍스트의 기능과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번역 과정에 구어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유간접문체를 파악하고 번역에 반영하는 접근법이나 전략에 있

어 분석 통계와 번역문의 세부 분석에서 모두 번역자별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반면, 주관성 지표를 객관적 설명문에 가깝게 축약하거나 전환하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자유간접문체를 구성하는 3가지 의식구현 양식인 자유간접사고, 지각의 재현 그리고 인물-화자 일치 심리서술이 현대 영미 단편소설 4편의 번역본에 반영된 양상에 대하여 각 양식의 특징과 지표를 기준 삼아 기술번역학적 접근법으로 실증적인 검토와 기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편의 번역본에서 공통적으로 자유간접사고(FIT)의 번역에서 변형과 오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전반적으로 3가지 양식의 세부적인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인물의 주관적인 의식을 담아내야 할 내면서사의 문장들이 객관화되고 축약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투리의 기술번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간접문체의 지표를 번역하는 세부적 활동(local activity)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작품 전반의 의식구현 중심의 내면서사 효과를 도착어로 구현해내는 종합적 시도(overall endeavor)가 함께 진행되는데(Toury, 1995, p. 11) 본 연구의 경우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부적 활동이 비율적으로 적었으며, 이와 함께 의식구현 양식을 기반을 한 주관적 내면서사 원작에 객관적 3인칭 인물-화자 불일치 서사의 성격을 더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소수의 경우이지만 자유간접문체의 지표와 효과의 인식, 서사의 맥락적 해석, 그리고 구어체의 인식 및 구현을 통하여 내면서사라는 원작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경우가 4편 번역본 모두에서 입체적이고 생생한 번역의 실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영어로 구현된 자유간접문체가 한국어와 근본적인 언어학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의식구현 양식의 기법적 효과와 지표의 인식, 그리고 구어체의 활용을 통한 자유간접문체의 구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즉 현대소설의 내면서사를 그려내는 자유간접문체의 번역

은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과제이지만 모호한 난제는 아님을 실증적인 분석과 기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ST1

Cheever, J. (1978). The swimmer. In *The stories of John Cheever* (pp. 603-612). Knopf.

TT1

Cheever, J. (2008). 헤엄치는 사람. (황보선 역), 사랑의 기하학 (pp. 231-255). 문학동네.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ST2

Munro, A. (2012). To reach Japan. In *Dear life* (pp. 3-30). Vintage.

TT2

Munro, A. (2013). 일본에 가 닿기를. (정연희 역), 디어 라이프 (pp. 7-43). 문학동네.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ST3

Keegan, C. (2022). *Small things like these*. Faber.

TT3

Keegan, C. (2023). 이처럼 사소한 것들 (홍한별 역). 다산북스. (Original work published 2021)

ST4

Coetzee, J. M. (2023). *The Pole*. Harville Secker.

TT4

Coetzee, J. M. (2025). 폴란드인 (왕은철 역). 말하는 나무. (Original work published 2023)

## <2차 자료>

- 김남희. (2019). 오정희 소설 「별사(別辭)」의 시간성과 ‘작가’의 재현. 현대문학이론연구, 79, 31-52.
- 김병국. (2000). 판소리 사설의 문체. 판소리학회. (편저), 판소리의 세계 (pp.188-198). 문학과지성사.
- 김종로. (2003). 라퐁텐의 자유간접화법 번역.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저), 번역의 이론과 실제 (pp. 259-289). 강원대학교 출판부.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박선희. (2011). 자유간접화법의 불완전한 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3), 55-82.
- 박선희. (2018). 『목로주점』에 나타난 ‘생각’의 자유간접문체와 번역: ‘말’ 번역과의 통시적 양상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43, 51-74.
- 서영환. (2018). 『더블린 사람들 (Dubliners)』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 번역 분석. 현대영미어문학, 36(1), 217-240.
- 양문규. (2013).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 윤영옥. (1996).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에 관하여. 현대소설연구, 12(5), 165-187.
- 이세희, 박윤우, 원서진, 이상빈. (2022). 한국 단편소설의 화법과 영어번역에 관한 논의 — 오정희의 「동경」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4(2), 85-110.
- 장경실. (2023).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서술 상황과 자기성찰의 관련 양상 연구 — 최인훈의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2(4), 5-38.
- 전성기. (2005). Le style indirect libre en coreen. 프랑스어문교육, 20, 243-77.
- 정하연. (2015). 내면서사 번역의 가능성: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3), 175-204.
- 정하연. (2022). 지금 그리고 여기: 힐러리 맨텔의 서사적 현재 번역양상 고찰. 비교문학, 88, 207-237.
- 최적. (2024).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다음성 효과 재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2), 159-188.

- Brinton, L. (1980). Represented perception: A study in narrative style. *Poetics* 9(4), 363-381.
- Cohn, D. (2020[1978]). *Transparent minds: Narrative modes for presenting consciousness in fi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ncan, I. (2011). *Alice Munro's narrative art*. Palgrave Macmillan.
- Hage, E. (2022). *Book review: Small Things Like These*. Harvard Review Online. <https://www.harvardreview.org/book-review/small-things-like-these/>
- Leech, G. & Short, M. (2007[1981]). *Style in fiction*. Pearson Education.
- Lenta, M. (2003). Autobiography: J. M. Coetzee's *Boyhood* and *Youth*. *English in Africa*, 30(1), 157-169.
- Matthews, J. (1992). Peter Rugg and Cheever's swimmer: Archetypal missing men. *Studies in Short Fiction*, 29(1), 95-101.
- Palmer, A. (2004). *Fictional mind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undquist, E. (2014). How is Mrs Ramsay thinking?: The semantic effects of consciousness presentation categories within free indirect style. *Language and Literature*, 23(2), 159-174.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in translation: How free indirect style i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Ha-yun Jung** (junghayun@ewha.ac.kr)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carries out an empirical and descriptive analysis of how free indirect style i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This analysis is based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free indirect style, which shifts away from free indirect discourse and toward the broader framework of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This framework comprises three following sub-categories: free indirect thought, represented perception and consonant psycho-narration. For this analysis, passages that contain all three of the sub-categories were excerpted from four respective translations of four short stories by John Cheever, Alice Munro, Claire Keegan and J. M. Coetzee.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represented perception and consonant psycho-narration passages were translated generally accurately in form and meaning, free indirect thought was shown either to have switched to direct discourse or psycho-narration, or to have been mistranslated due to its ambiguous features rooted in spoken language. Furthermore,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those translations that generally reflected the form and meaning of the free indirect style sentences had mostly diminished or omitted the features of the three sub-categories, including elements of spoken language, expressivity, mimetic language, and figural subjectivity.

**Keywords:** Free indirect style in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contemporary fiction in translation; English into Korean translation; translating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키워드:** 자유간접문체 번역, 문학번역, 현대소설 번역, 영한번역, 의식의 구현 번역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junghayun@ewha.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